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세션 20, 미가 1-3장, 미가의 메시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20, 미가 1-3장입니다. 미가의 메시지

여기 미가서에 관한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방법을 연구해 볼 것입니다. 책을 장별로 주의 깊게 읽어가면서 미가 사역의 구조와 메시지, 궁극적인 기여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가는 앗수르 위기 동안인 8세기에 유다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발처럼 갈아질 것이며 앗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매우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책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약속,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미가서 자체의 구조도 그 점을 반영합니다.

이 책에는 세 가지 주요 부분이 있는데, 모두 들으라는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군사적 침략과 포로 생활을 포함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 남은 자들을 다시 데려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나라와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구원의 약속이 더욱 두드러지는 중반부에는 들려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신 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이 있을 것이며, 시온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6장과 7장에는 들으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언약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음을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때 통곡과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미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봅니다.

그러나 7장 8절부터 20절까지에는 앓수르 포로 생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애통과 통곡과 슬픔이 기쁨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부터 19절에서 미가의 메시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쪽 왕국에 내린 심판에서 유다를 구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미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분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다음 우리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1장에는 이 메시지의 초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맞춰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가 북쪽 왕국을 섬기고 매우 인기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뛰어난 수사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는 민족들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유다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실제로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치를 떨어뜨리고 북쪽 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1장에서 같은 유형의 수사적 기술을 반영하는 뭔가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이자 교사로서 전파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의 수사력은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아모스가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열방과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미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그리고 북방에 초점을 맞춘 이 앞선 책들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국, 이제 그 심판이 남왕국 유다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사로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 장에는 그 모티프, 그 이미지, 그 은유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신현(theophany)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은 용사로 나타나실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떨며 그의 앞에서 녹는도다 오 지구여,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책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처소, 자기 성전에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림하여 땅의 높은 곳을 밟으리니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불 앞의 밀초 같이 터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흰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용사로 나타나실 때에는 땅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괜찮은.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사로 강림하시는 이유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5절).

그러므로 미가는 사마리아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면서 야곱의 범법이 무엇인가?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러므로 또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북왕국 사람들도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이 땅의 심판관이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메시지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꽤 좋은 사랑의 제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마지막 핵심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미가는 이것을 반대로 행한 다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곱의 범법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냐? 하지만 여기에 그 구절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남쪽 왕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 왕국에

임할지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이스라엘의 참 백성의 지도자임이 입증된 다윗 가문의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택하여 거하시려고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과 벳엘과 길갈과 다른 모든 곳에 배도한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메시지는 북쪽 왕국의 불신앙이 남쪽 왕국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유다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6절에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에 무더기가 되게 하며 포도원 심을 곳이 되게 하고 그 돌을 골짜기에 쏟아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리라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황폐하고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도 뒷부분 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승냥이 같이 애곡하고 타조 같이 애곡하리니 그 상처는 고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와 화를 말하니 이것이 유다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내 백성의 성문인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수사법은 사마리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므로 그 심판과 황폐함을 함께 묶는 것입니다.

남쪽 왕국은 북쪽 왕국과 마찬가지로 아시리아의 공격과 침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8세기의 정치적인 우연이나 군사적 사정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효과적으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용사로서 밟히셨지만 이제는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용사로 오십니다.

첫째, 사마리아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은 유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제시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고 나는 아직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후반부에서 이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는 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수사적으로 뛰어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가가 우리에게 예언적 상상력과 예언적 계시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유다 나라를 행진하고 앗수르 군대가 성읍들을 함락시키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서 그가 하려는 일은 특정 공동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다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에 빠질 것임을 상기시키거나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비문은 사실을 말하고, 아시리아 연대기는 아시리아인이 유다의 46개 도시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글쎄, 미가는 특정 도시를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매우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16절로 내려가면서 보아야 할 것은 앗수르 군대가 유다 땅을 휩쓸 때 그들과 함께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28절부터 34절에서 우리를 위해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을 합니다. 그는 예언적 상상과 계시를 통해 앗수르 군대가 유다의 다양한 마을과 공동체를 통과할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Micah가 하는 일은 다양한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일련의 말장난과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이나 역사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메시지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 메시지를 기록하기 전이나 미가의 말로 기록되기 전에는 구두로 전파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다가오는 심판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고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역사 전반에 걸쳐 선지자들의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미가는 유다에 있었던 실제 공동체와 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도시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의 심각성을 감동시키는 말장난과 말장난을 합니다. 내가 8세기 미가의 청중으로서 미가의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내가 그 마을 중 한 곳에 살았다면, 와, 이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집과 가깝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가족이나 친척, 씨족이나 가족의 일부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깨우고 이 메시지의 심각성을 나에게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미가 메시지의 충격적인 가치에 기여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수메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배 장소와 성소를 특징짓는 오랜 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송아지가 없지만 배교한 제단과 아하스가 성전에 가져온 물건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합 통치 아래 북쪽 왕국 사람들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쪽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련의 암시와 말장난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오늘날 이런 일을 하고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아니면 워터타운에 워털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 암시가 있고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악마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린치버그 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부의 역사를 보면 그곳에서 린칭과 불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린치버그에서 린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메시지의 충격적인 가치와 심각성을 우리에게 인상 깊게 줄 모든 종류의 암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인트 루이스와 세인트 폴은 거룩하지 못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나갈 때 우리는 약간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것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메시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일을 가드에 말하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가드에 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말장난 대신 역사적 암시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용된 말입니다.

이 블레셋 도시 가드에 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발생한 이 국가적 재난에 대해 우리의 적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을 잃었던 그때를 언급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평행선은 베들레아 프라 에서 전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울어서도 안 되고 애통해서도 안 됩니다. 베들르 아프 라는 히브리어로 아파르(Afar)를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티끌의 집은 베들레아 프라 에서 말한 것인데 티끌의 집에서 그들은 스스로 티끌에 굴러야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먼지와 재와 베옷, 이 모든 것은 애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드에 말하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니라

우리는 그들이 이 재난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서는 그들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해 울며 애곡할 것이다. 먼지의 집은 먼지 속에서 굴러갈 것입니다.

샤피르 주민들아, 벌거벗고 부끄러운 몸으로 너희 길을 가라. 샤피르(Shaphir) 라는 단어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유배자가 될 것이라는 대조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벌거벗음의 추함과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마을은 매우 불쾌한 경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Zaanan 의 주민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Zaanan은 히브리어 동사

yatsah(나가다)처럼 들립니다. 거기에서는 두 개의 자음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Zaanan 사람들은 yatsah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밖에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앓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포위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위 공격에서 일어난 일 중 하나는 그 도시의 주민들이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고, 결국 굶어 죽거나 식량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Zaanan은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서 있는 곳을 네게서 거두시리라 옆집 벤에셀이 애곡하며 이 집 벤에셀이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으므로 그들이 그 이웃 성읍들을 능히 도울 수 없으리라 또한.

그들은 자신의 멸망을 슬퍼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웃을 보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롯기에서 마롯 주민이 마라(마라, 괴로움)라는 말을 나오미가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심히 잔인하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비터타운 마로스 주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라아와 재난과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Bittertown은 재난과 재앙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일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앓수르 군대가 휩쓸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연은 “재난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였음이라” 라는 말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도시들을 통해 일했고 심판을 받게 될 다양한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첫 번째 연은 예루살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끝을 맺습니다. 앓수르 군대의 최종 목표인 목표는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것이 될 것이다.

701년에 그들이 유다 성읍들을 함락시킨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수도이자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포위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탠자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장난으로 돌아옵니다. 라기스라는 단어는 팀이나 말을 뜻하는 라키쉬(rakish)와 유사합니다.

라기스의 목표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수비대이자 요새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라기스의 주민인 병거에 말과 말을 동원한다면 그 보호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기스가 앓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의해 정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전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적군의 맹공격을 견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대신 병거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팀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라기스가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호는 거기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장난이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라기스가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라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임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기스가 죄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군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거짓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필요한 방식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는 단어 연극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에게 작별 선물을 주어야 한다. 말장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전에,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선지자로서 미가는 자신의 고향에 실제로 심판을 선포하는 달갑지 않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고통과 말장난과 말장난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사람들을 조롱하는 방법입니다. 이 고통은 그에게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삶과 가족, 친구들에게 닥칠 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놀이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의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레셋 가드 에 있는 말장난은 모레셋이라는 단어가 약혼을 뜻하는 단어 모라샤(mo'orasha)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혼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것처럼 들리는 이 도시 모레셋 가드는 사실 앗수르 군대에게 이별 선물이나 지참금으로 주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앗수르 군대가 약탈하는 약탈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이 단어, 즉 결혼에 대한 약혼과 가족의 행복을 뜻하는 모라샤(mo'orasha)는 아버지가 하던 방식으로 넘겨질 것이라는 불길한 메시지가 됩니다. 신부는 신랑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줄 것입니다. 이 성읍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언급된 다음 도시는 악십의 집들인데, 이는 속임수나 거짓을 뜻하는 단어인 악자브(akzab) 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악십의 집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왕들은 여러 성읍과 촌락과 산성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의 수효를 삼아 보호하리라 생각하였더라

도시 주변의 성벽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십의 집은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체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시리아 군대의 전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십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무너지는 성읍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마레샤 거민들아 내가 너희를 이길 자를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레샤(Mareshah)라는 단어는 정복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야라쉬(Yarash) 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령 도시, 정복 도시는 결국 정복되어 앗수르 군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을의 이름이 사용되는 방식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돌람에 임하리라.

우리가 여러 도시들에 대한 이 긴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가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말장난 대신 역사적 암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돌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피하려고 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피해 도망쳐야 했고, 말을 타고 달려야 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 왕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행하실 계획에 대한 매우 불길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설교의 초점은 선지자나 설교자가 메시지의 처음, 중간, 끝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예루살렘 살롬이 이 모든 일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9절). 그것이 유다에게 이르렀습니다. 12절, 이는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이르렀음이라 첫 스탠 끝에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예루살렘 집에 내리셨음이니라 두 번째 연의 시작 부분에서는 라기스 주민인 병거에 말을 싣습니다.

이것이 딸 시온에게 죄의 시작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1장 16절에서 네 기뻐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너는 대머리가 되고 네 머리털을 자르라.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서 사로잡혀 갈 것임이니라.

설교 내내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나라에 대한 유배의 경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나머지 나라도 함께 갈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 남왕국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심각성을 볼 때, 미가가 이 메시지를 제시하는 수사적 기술을

볼 때, 우리는 '와, 사람들이 이것을 들어야 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까지 이러한 심판의 경고는 대체로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우선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2장에서 첫 번째 섹션을 계속하면서 이 섹션에서 할 일은 1장을 보완하면서 심판의 그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먼저 판결 발표가 나왔습니다.

2장에서는 이 심판이 왜 오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가가 집중하려는 주요 내용은 미가가 유다 지도자들의 죄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8세기 선지자들의 공통 주제로 돌아가서, 공의의 문제와 유다 시민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에 제시되고 규정된 종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선지자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를 가장 반대하는 무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다른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1장에서 침략에 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비애와 열정, 효율성과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다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반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사회 정의에 관한 이 문제와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한 악을 뜻하는 라아(ra'ah) 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을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도덕적 악을 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불의를 피하며 침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손에 달려 있음이라.

그들은 밭과 집을 탐내고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남자를 학대하고 자기 상속 재산에서 남자를 학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유다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장 8-10절, 밭에 밭을 더하고 빼앗고 그 이웃의 재산을 탐내며 남을 학대하고 욕보이며 그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점점 더 갖고 싶은 욕구.

미가는 이러한 사회적 죄에 대해서도 설교할 예정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피하고 악을 행하였느니라, 라아 .

께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 네가 이 악을 네 목에서 제할 수 없을 것이며 네가 전과 같이 오만하게 행하지도 못할 것은 재앙의 때가 될 것임 이니라 라아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저지른 라아 에 대하여 라아를 심판 하실 것이며 , 심판의 주된 이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불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2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미가는 또한 그들의 메시지인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합니다.

그런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치욕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반대 메시지를 전하는 그를 반대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너는 이런 것들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 것들.

우리는 당신이 유다 성읍들에 대해 온갖 말장난과 말장난을 하던 곳에서 당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치욕과 재앙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흥미로운 점은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nataph 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인 nava 가 아니라 nataph 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은 똑똑 떨어지거나 똑똑 떨어지는 어떤 것의 근본 의미와 같은 개념이나 의미를 갖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는 물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9장에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산과 작은 산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것입니다. 잠언 5장에서는 음녀의 유혹적인 말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녀의 말은 꿀처럼 떨어진다.

나타프를 전파하지 말라, 이 떨어지는 메시지를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가가 어찌하여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주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가야, 입에 거품 좀 내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미가가 이것을 뒤집기 위해 한 것은 그들이 나타프를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타프를 설교하며, 그는 그들의 말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입에 거품이 이는 메시지를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말 헛된 말씀을 전하는 자니 결국에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그룹의 선지자들이 있고 미가와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그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앗수르의 위기는 다음과 같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이고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들은 '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므로 이 재앙은 궁극적으로 삼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로.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했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오늘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이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아닙니다. 미가는 계속해서 11절에서 비꼬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가운데서 예언을 하면 너희도 알느니라. 그들은 내 설교를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나타프(nataph)로 분류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단지 바람과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가치가 없습니다. 만일 두루 다니며 거짓을 행하며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백성의 선지자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리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는 맥주와 포도주가 풍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영할 것이고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종종 직면하고 경험해야 했던 예언적 갈등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8세기에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미가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바로 길 아래에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를 방해하고 그가 설교하는 메시지에 개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미카. 우리는 인종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겠습니까? 7세기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샬롬, 샬롬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샬롬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 메시지는 그 당시 인기가 있었고 그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선지자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심판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미가와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대신에 단지 그들 자신의 마음의 공허하고 헛되고 망상적인 꿈만을 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청중이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종종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쩌면 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 주변의 한 가정에서는 밤에 이 메시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이 토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믿나요? 미가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식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여러 번 자신을 바알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로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와 선지자로 자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 투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발효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살아온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거기에 있었던 사회적 죄의 두드러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애초에 그 이유가 되었던 우상 숭배와 종교적 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명백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본질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심판이 그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근저에 깔려 있는 부분은 단지 서로 다른 두 메시지 사이의 갈등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완전히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신학적 기초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평화, 평화, 평화가 없을 때. 언약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는 미가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는 축복과 책임이 모두 포함된다는 생각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속과 계명이 모두 포함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축복을 기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눈을 뜨고 그 당시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있었던 사회적, 종교적 죄악을 솔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명백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계시는 우리의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의 두 가지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책임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한 고백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경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단순히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기를"이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언제나 언약적 책임과 언약의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축복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에 따른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언약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미가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그들에게 매우 분명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소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회개와 믿음은 궁극적으로 온 민족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가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직면하고 미가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다음 세기에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원전 701년에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고 앗수르 군대를 돌보신 후, 이는 예루살렘 성이 항상 적의 공격에 불가침적이라는 추정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일부였으며 예루살렘 도시에서 거행되었던 신학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와 그의 대적들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의 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시편 46편, 48편, 76편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셨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거처로 택하셨느니라. 그래서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이데올로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701년에 도시가 이미 전달된 이후에 그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유명한 성전 설교와 7장에서 속이는 말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책임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년 후 예레미야가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죽어야 해요. 그러나 미가와 예레미야는 둘 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성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근본적인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거처로 지키고 보호하시려면 그 성이 여호와의 영광과 순결과 거룩함을 반사하는 성이어야 합니다. 시편의 전통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15편과 24편에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46편, 48편, 76편의 약속을 강조했고, 예레미야 시대에 701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맞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또한 자신의 무기와 무기, 군사 자원에 대한 신뢰와 신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전통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야, 예레미야 이전 시대에 이사야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 전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실로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신 성읍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며, 미가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 내릴 심판으로 이 첫 번째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행진합니다. 2장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책의 두 번째 부분을 열면서 미가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기초가 되는 죄를 확립함으로써 이 부분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다시 불의의 행실과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씀이 백성을 미혹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지자들을 읽고 공부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은유와 이미지의 풍부함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장의 시작 부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들의 사악함과 불의가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는 강력한 은유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였고 내가 이르되 너희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관원들이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알 바 아니냐 좋아요, 우리는 다시 사회 정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네가 악을 사랑하느니라. 이제 여기서 은유가 시작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떼어 내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느니라. 당신은 그들의 가족을 벗기고 그들의 뼈를 쪼개셨습니다.

냄비 속의 고기처럼, 가마솥 속의 고기처럼 그들을 자르십시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끔찍한 성격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그들을 식인종에 비유합니다. 당신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족을 벗기고 앗수르 군대가 했을 일을 행하며 그들을 자르고 토막내고 냄비에 넣고 스투처럼 요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장난을 용서하세요.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식인종으로 보시나요? 우리는 단지 정의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들은 종종 모세 율법이나 부채 노예 제도와 같은 조항을 사용하여 법을 어기려고 합법적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와 범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의 눈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식인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대하고 이용했던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끔찍할 정도로 비인도적인 대우를 한 이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4절). . 그 때에 그분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라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미가서가 요나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라아 관행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책을 서사적 배열에서 비교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도 니느웨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식인종과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이사야와 미가의 메시지는 여러 면에서 서로 어떻게 보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통치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와, 하나님 고향의 지도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손을 들어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미가도 여기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을 들 때마다 여러분이 이웃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방식에 있는 피흘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살인자들에 비유했습니다.

미가는 그들을 식인종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항의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폭력에 대해 무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 세우신 제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공의와 공정함과 관대함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땅을 상속받게 하고 각 가족이 자기의 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을 부양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살인자나 식인종과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언약의 책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장 12절의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온은 발처럼 갈아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방향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이 유다 왕국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설교할 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만약 올바른 반응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실 기회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니스웨 성에서 그들이 행한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150년 후 그들이 그 악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훔은 니스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성이 결국 멸망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8세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메시지와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회개하는 반응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 위기의 시대로 가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예루살렘이 최악된 길로 돌아갔다는 스바냐와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의 메시지로 갑니다. 그 결과, 원래 미가가 선포했던 심판의 소식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훔과 니스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체된 심판을 최종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길을 변화시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주고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타내는 반응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시며 심판이나 구원을 내리실지 여부를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대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중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발표하고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니네베 왕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가의 사역에서 예레미야 18장 7-10장의 원칙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사실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이 그에게 반응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가 행한 심판을 기꺼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생각이 주요한 신학적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지식을 제한하셨다는 생각이나 추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은유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이러한 실제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에 참여하시므로 사람들과 그들의 반응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의 기도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개입하여 심판을 선포할 때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미가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을 때 히스기야가 회개한 모습. 그것은 중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덕 때문에 마음을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은 샐러드를 먹다가 밥을 먹다가 파파존스를 지나가다가 변덕스럽게 마음이 바뀐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실제적인 속성이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유이지만 단순한 은유는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께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최종 결정과 사건의 최종 결과를 바꾸십니다. 또한 민수기, 민수기 23장, 사무엘상 15장과 같은 특정 구절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방금 살펴본 예레미야서 26장, 요나서 3장, 예레미야서 18장, 출애굽기 32장, 아모스서 7장과 같은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글썄요,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 중 일부는 단순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장소, 그것이 그분의 실제 모습이고 다른 장소는 단지 비유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실 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 그들을 저주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시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시니라 그는 마음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시고 이행하겠다고 맹세하신 핵심적인 언약의 약속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마이크 그리산티(Mike Grisanti)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닦이 되는 언약의 약속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경우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이를 행하리라, 내 뜻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열려 계시고 응답하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을 때나 사람이 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는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경우와 선지자들이 설교하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그들이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가 위협했다는 판결을 보내지 마십시오. 선지자 미가는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 할 진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축복과 책임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유다는 궁극적으로 앗수르의 손에 멸망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축복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을 기꺼이 살겠다는 의지로 응답하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선지자인 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12장에 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20, 미가 1-3장, 미가의 메시지입니다.